

韓國建築界의 當面問題

鄭 寅 國

序—提論

筆者는 最近에 韓國建築界의 當面問題가 무엇인가를 深刻하게 生覺할 여러 機會에 부딪치게 되었다.

첫째, 建設協會要請에 依하여 靑丘大學 慘事現場을 踏查하였다. 이미 世上을 놀라게한 이 事件은 이렇다 할 結論도 없이(勿論 法庭에서의 判決은 내리지겠지만) 우리 記憶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 建築史上 보기드문 事件이 어떠한 原因으로 發生하였느냐 하는것도 重要한 問題이기는 하지만 이 事件이 發生한 以後 行政的으로 또는 學究的으로 그 原因糾明의 方法이나 經過가 너무나 無秩序하고 散漫한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數많은 學者와 行政家들이 現場을 調査하고 갔으나 學術的인 立場에서 그 原因에 對한 調査報告書가 發表된 것을 보지 못 하였으며, 建設部, 數個의 建築團體에서 會議를 거듭하였으나 이 亦是 破壞原因을 正確하게 規定치위 一般과 專門家들의 公證을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筆者가 參席한 唯一한 建設協會 技術審議委員會에서도 構造計算上 露出된 過誤면 그 以上 論議할 必要를 늦기지 않는 것으로 處理되고 말았다. 勿論 表面上으로나 形式上立場에서는 具體的으로 들어난 構造計算 錯誤와 現實的으로 倒壞된 事實만 가지면 다른 問題를 더 追窮할 餘地없이 쉽게 結論 지을수 있다 그러나 構造計算이라는 方法에 있어서 그 方法 自體의 假定이나 安全率이나 許容限度의 幅넓은 限界의 曖昧한 點등으로 미루어 볼때 構造計算上의 錯誤가 그대로 建物을 決定的으로 砂壤하는데 까지 이르게 하였는 가 하는 點은 容易하게 首肯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錯雜히 複습된 原因을 分析하여 建築士에게, 學界에 行政當局者들에게 큰 警鐘이 될수있도록 좀더 組織的이고 統一된 調査機構와 方法이 實施되었어야 하였을 줄 안다. 더욱이 이 事件이 物質的인 被害뿐만 아니라 十餘名의 人命被害를 입힌 法律上 處決問題와도 關係되기 때문에 露出된 事實만을 들 뿐이지 그 內面의 相互連關性이나 關係의 深度를 追求하려고 들지 않는 無難한 結論으로 끝맺고 만듯한 개운치 않은 結果이다.

둘째, 某某建物懸賞審査委員會에 參席하였다. 이 들은 韓國初有의 大規模의 建物하나의 韓國初有의 紀念性을 드인 다른한 建物이다. 이 두 建物이 모두 한 審

査員이 眞心으로 바라고 있는 方向과는 다른 方向으로 突進하여 物議를 일으키고 또 빈축을 사고있다. 하나는 意圖하고 있는 基本아이디어가 成熟한 建築創作品으로 轉換하여 줄것을 바랐고, 또 하나는 個個가 가지고 있는 不完全性を 結束된 힘으로 補完되어 주기를 바랐는데 이 모두 純眞한 審査員의 善意的 祈願과는 背馳되는 길을 擇하였다. 무엇이 이렇게 하게하는 原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리 저리 부칠수있는 淺薄한 억지 理由 때문은 아닌것 같다. 그 內面에 우리 建築界의 正當한 發展을 侵害하는 어떤 病弊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세째, 標準局에서 主催한 모듈(module) 制定委員會에 參席한 일이었다. 建築工業化의 多量生産을 爲한 基礎치수의 決定을 目的으로하는 모듈制定은 世界各國의 趨勢에 비추어 切實히 必要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會議의 內容을 들어보면 너무나 拙速主義로 일을 서둘르고 있을 뿐아니라 이러한 重大한 基礎的 事業에 割愛한 豫算이라는 것이 不要不急한 다른面의 天文學的 豫算에 비추어 微細한데 놀랐다. 韓國의 모듈制定을 爲한 總豫算이 3萬5千圓整이라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듈의 制定이 生産業界와 디자인界에 얼마큼 큰 影響을 주며, 그것이 우리 周邊 生活에 어떠한 革命을 일으키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 會議 亦是 沈鬱한 場所의 탓인지 흐린氣分으로 계단을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네째, 어떤 建物設計의 設計者의 名義가 任意로 둔갑하고 있다. 한 權威있는 月刊雜誌에서는 法的契約者로서 基本 아이디어를 着想誘導한 끝에 最初提出한 圖面制作者를 設計者의 名義로 發表하였고, 다른 한 季刊雜誌에서는 所管 企業處로서 恣意로 할수 있는 制作權 侵害를 部分的 修正으로 行한 끝에 當當히 名義를 내세우는 橫暴를 恣行하고 있다. 落後한 倫理社會일수록 建築主의 橫暴는 甚한 法이다. 오래전에 한 映畫에서 理想主義者인 建築家가 自己設計와는 다른 建物이 建築된데 憤慨하여 建物을 爆破하는 場面을 본 記憶이 있다. 이러한 無秩序와 恣意와 橫暴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社會는 韓國社會 뿐일 것이다. 建築行爲社會에서 이러한 無政府狀態를 默認하여 一言半句 對句도 하지 않는데는 建築主의 橫暴를 茶飯事로 알고

있는 不遇한 世代的 諦念도 아니고 철 없는 三尺童子의 戲弄을 可笑롭게 生覺하는 탓도 아니다. 좀더 깊은 哲學的苦悶에서이다.

假令 例로 든 이 建物の 그 자랑스러운 基本아이디어란 어떤 것인가. 적어도 全世界各地에 十餘個는 있는 그런 것이다. 또 알루미늄루바의 스퀘드펠로 된 이 建物の 包裝紙는 獨創인가? 또 美國 친구가 선사해준 工業生産品의 包裝紙를, 模倣하여 그럴사하게 집을 싸는 行爲가 果然 우리 自身을 納得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 그것을 누가 했든 世界의 어느 한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A or B 가 했을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韓國社會에서 問題는 그것을 누가 하였느냐 보다는 더 深刻한 重要한 論點이 이 些少한 일로 提案될 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鈍感하게 癡痺된 神經으로 얼버무려 두고 넘어가는 世態가 寒心할 뿐이다.

다섯째. 某雜誌를 읽었다. 거기에 高名한 建築家들의 座談이 실여 있었다. 그곳에는 建築內至 建築家라는 分野에 對해서 有益한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果然 建築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特定한 藝術의 陶冶를 거친것에 限하며, 建築家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特定한 藝術의 資質을 갖춘 사람에 限하여 누릴 수 있는 高尚한 이름인가? 筆者는 數年前 藝總創立總會에서 藝術文化團體라는 이름이 建築이 加擔한 것으로 크게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이 發言한 親愛하는 한 詩人의 發言에 억울함을 참지 못 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建築에 對한 高踏의인 定義를 내리는 데도 어떤 현기증을 느낀다. 흔히 初年生 建築學徒들에게 建築家라는 말은 처음으로 宇宙의 創造者라는 뜻으로 세익스피어가 썼으며, 古代社會나 文藝復興時代에는 建築家は 모든 藝術과 技術의 總帥라는 뜻으로 불렸으니 너희들도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훌륭한 建築家가 되라고 教訓한다. 建築에 對한 이러한 概念은 多分히 中世紀의인 윌리엄모리스流派의 생각에서 根源하는 것이다. 또 近世에 들어와서 貴族에게 雇傭當하고 있던 御用建築家들의 貴族趣向에 起因하는 것이다. 建築은 사람이 살고있는 땅위에 사람을爲하여 세워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神을 섬기기爲하여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問題가 座談에서 오고가는 理由는 特權意識에서 오는것과 建築行爲에 있어서의 誠實性 純粹성을 疑心하는데서 생긴것이다. 建築創造에 從事하는 모든 建築士가 人間이 居處하는 空間創造에 誠實한 態度로 對하면은 그 結果가 비록 어떤 價價規準에서 얕은 水準에 있다 하더라도 建築本然의 行爲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서 建築教育과 建築評論등 여러가지 部面的 質

的向上으로 韓國의 建築內容을 豊富하게 하는 대신에 高踏의인 言辭로 超然한 態度를 取하는 것은 百害無益하지 않을 까하는 懷疑가 座談으로 줄수있다 啓蒙보다 더한것 같다.

여섯째. 서울市內를 散策하며 이런 感懷에 젖는다. 到處에 뚫어놓은 地下道에는 장마철에 물이 새서 떨어지는데 한편에서는 地下都市를 構想한다. 애써 만든 陸橋의 階段 폭은 여기 저기에서 다시 뜯어 넓히느라고 일을 서두르고있다. 都心地에 알맞게 들어 앉아 있던 조선호텔 자리에는 數十층의 摩天樓가 세워진다고한다 都市景觀의 都市計劃的 解釋을 입 버릇으로 하든 建築家들이 그 말의 더 온김이 식기도 前에 이것을 贊同하고 나선다 반도호텔 앞에도 중묘 맞은 편에도 파고다공원 周邊에도 商街가 준비하게 선 다고 한다. 그것이 所謂 都市再開發計劃이라고 美名을 부치는 지는 모르겠다. 도매채 이런것들이 어떠한 科學的 根據에서 計劃的 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인지 네로皇帝가 彈琴朗詩 하며 로마市를 불지른 氣分으로 하는 것인지 모를일이다.

그러면 우리 建築界의 當面한 重要한 問題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을 基本的으로 어떻게 處理되어야 할것인지 생각하여보자.

全般的으로 精神的 問題에 對하여

1. 建築에 있어서의 倫理性的 要求

언제나 偉大한 建築時代의 始初에는 建築의 內面에서보다 倫理性에 對한 要求가 더 強調되기 마련이다. 現代建築의 始祖라고 불리우는 윌리엄·모리스는 그의 作品上의 活動보다도 當時의 混沌한 創作世界의 倫理的指針을 明示한데 있다. 그는 19世紀初의 狀態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첫째로 利潤을爲하여서만 生産은 행하여져서 製品을 가져물건이 되버려 藝術性은 喪失되고한다. 둘째로 大量生産을 追求하는 나머지 機械化와 分業이 行하여져서 勞動者는 機械의 노예가 되어 藝術的 創作의 自由가 없어졌다. ……셋째로 裝飾的 藝術은 機械化되어 여기에 從事하는 者의 社會的 地位는 下落하고 藝術은 特權階級的 藝術家의 손에 마져져서 藝術 全般的 衰退가 招來된다.

그다음 虛偽와 模倣과 汚毒된 環境을 是正하는 것을 建築活動의 出發點으로 삼은 다른 한 建築家를 들어보자.

和蘭의 벨라체는 1890年代에 一般으로 流行하는 建築物을 걸치레의 建築, 即 模倣, 即 虛偽라고 하면서 虛偽가 法則이되고 眞實이 例外가 되버리고만 建築活動을 慨嘆하고 있다. 또 거의 같은 時期에 반·데·벨

데는 「외와같은 汚毒된 環境을 一掃하라!」고 웨켰다
이러한 先驅者들의 말은 次元을 달리하면서 그대로
우리 社會에도 該當시키고 싶다.

充分한 技術的 檢討도 없이 倒壞된 要素가 많은 設計를 해 내치은 大學教授의 良心, 技術的 檢討를 專門
家에게 맡겨 할수 있도록 充分한 經費도 支拂하지 않
는 企業主의 吝嗇, 이러한 圖畫를 유아무야 許可하여
준 行政官吏의 無能, 또 이 工事を 無許可業者가 盜用
한 商號로 아무 技術保障없이 進行된 業者의 無謀한利
潤追窮등 一連의 일들, 그 외에 提論 구석구석에 頗多
한 虛僞와 汚毒된 環境을 一掃하는 것만이 建築界를
淨化하는 唯一한 길이다.

建築活動은 단지 利潤追窮의 한 手段으로 化하여 藝
術活動이라느니 보다는 巷市의 商行爲와 흡사하여 졌
고, 建築의 本質은 이러한 商行爲에 알맞게 P·R을 爲
한 廣告術에 가깝게 타락하여 가고 있다. 建築藝術의
本質과 純粹性を 다시 찾는 것이 우리들 建築家의 急
先務이다.

2. 建築評論의 育成

이제는 韓國도 建築評論이 必要한 時期가 되었으며
또 素地도 마련 되었다고 본다. 2年前 美國의 著名한
Pratt 大學建築科長이 懇談會席上에서 第一번저 묻는
質問에 韓國建築評論은 어떤 狀態에 있는가를 내놓았
다. 그때 아직 時期尙早함과 그럴만한 充分한 與件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建設面에서 봄을 일으키고 있어 政策, 價値,
社會性, 技術, 機能, 生産 方式등 여러面으로 論議의 對
象이 되는 評論相對物이 急增하고 있고, 一般大衆의
關心이 나날이 커가고 있는 點 더욱이 住宅問題, 都市
問題, 國土計劃問題등으로 直接的으로 市民社會의 利
害關係와 漸漸히 接近하고 있는 點 들은 建築評論을
要求하게 하는 要因이 된다.

建築家의 立場에서 볼때도 本質的 問題에 對한 混亂
과 技術, 디자인의 急進的 發展과 이에 隨體하는 建築
家의 資質向上等은 또한 建築評論을 切實히 必要로 하
게 한다.

建築評論이 成立될려면 批評의 對象이 될만한 建築
物이 있어야 할것과 批評할수 있는 能力을 가진 評論
者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作用받을 수 있는 社會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經濟成長에 따르
는 建築의 膨脹에 따라서 相當한 數의 對象은 생겼다
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充分
한 能力을 가진 批評家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昔 오
레전에 某雜誌에 韓國의 建築家를 아무 原則없이 分類

하다 途中에 擱筆한 것 같은 論文이 學術誌 卷頭に 실
린것을 읽고, 그 論文을 쓴 사람이나 실은 사람이나
모두 常軌를 벗어난 사람들이란 느낌과 建築批判의 困
難함과 重要함을 새삼스럽게 느낀적이 있다.

批評家로서의 基本條件은 그의 批評의 立場이 明確
하여야하며, 一貫된 方法이 樹立되어야하며, 이러한 方
法이 그 社會에서 容認되어야 한다. 一時的 着眼이나
感情的 發言으로는 批評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建築
評論에서는 繪畫나 彫刻 같은 純粹藝術과는 달라서 社
會라는 建築主가 있기 때문에 批評이 잘못되어 被害를
주는 範圍는 넓어진다.

批評의 方法에 있어서도 各樣各색일 수 있다. 럼포
드(L. Mumford)는 文明社會의 發展에 대한 廣範한 社
會文化史의 見地에서 社會環境으로서의 都市, 建築의
推移, 個個作品의 檢討紹介를 方法으로 하였고, 기데
온(S. Giedeon)은 美術史家로서 建築活動에서 藝術의
社會的인 새로운 契機를 把握하고, 認識하며, 解釋하
여 一般化하는 立場도 있고, 리차즈(J. M. Richards)
같이 近代建築活動에서 그 本質, 그 意義를 解説하면
서 現實의 動向을 規定짓는 方向도 있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것은 該當時點에서 그 社會에 切實히 要求되는
問題點들에 알맞게 評論이 行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現在 우리 社會의 狀態에서는 어떤 建築活動이 社會要
求에 合當한 것인가 外來文化의 影響 밑에서 獨自의 文
化로서 認定받을 수 있는가, 建築의 本質的 要素와 離
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問題가 그 建築이 藝術의 價
値로 보아 좋은가 좋지 않은가 하는 問題보다 더 重要
하다

그래서 批評의 세계要素인 社會가 論議된다. 리차드
노이트라는 말하기를 建築에는 恒常 두개의 建築主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資本을 直接내는 建築主이고
하나는 沈默하고 있는 社會라는 建築主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批評도 建築과 마찬가지로 社會의 判定
으로 效果가 發生하게 된다. 어떤 sensual 한 몇개의
建物을 보고 온 한 市民이 그 建物の 表現의 卓越함에
놀라는 것 보다는 効用性에서 제로이고 經濟性에서 제
로以下라고 評하는 것을 듣고 沈默의 社會의 批評에 感
嘆하였다.

하루 速히 建築評論을 育成하여 韓國社會에 알맞은 建
築이 제 軌道에서 發展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겠
다.

3. 個個建築家의 建築哲學樹立

美國의 著名한 建築家인 야마자기가 現建築界의 混
亂은 哲學의 貧困에서 起因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哲學이라함은 極히 俗된 뜻으로 즉 建築의 純粹性이나 藝術性을 느끼고 있는가, 建築의 基本要素를 理解하고 있는가, 建築의 社會性을 알아 거기에 背馳안되게 行動하는 가하는 程度에서 우리 建築界에 該當시킬 수 있고 좀더 깊이 들어가서 創作態度에 根源的 哲學이 뒷받침하고 있는지, 社會와의 關係에서 어떤 革命的, 指導的 役割을 하고 있는지, 現代建築思潮 속의 어떤 位置에서 作業하고 있는지를 통털어 말하고 있다. 이것을 逆으로 말하면 大部分의 建築家들은 建築은 設計金額에 알맞게 適當히 處理하여 그려주는 構造物로 알고 있고 皮相의으로 模倣하는데 그치고 말든가, 自己商號를 宣傳하기 爲하여 奇矯한 表現을 無節制하게 誇하든가 하는 傾向이 우리 建築社會의 風潮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全世界의 建築의 混亂相은 韓國에까지 波及되고 있다. 그러나 世界的混亂相이라는 것은 近代建築初期의 巨匠들의 뒤를 이어받은 中堅建築家들의 多様な 表現이 비쳐낸 結果인데 그것들은 그런대로 深奧한 哲學이 뒷받침하고 있으나 우리들것은 그렇지 못하다. 筆者는 이미 다른 論文에서 韓國의 建築思潮의 큰 흐름을 대 체로 셋으로 區分하여, 첫째는 國際主義建築樣式을 純粹하게 踏襲하여 建築工業化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 部類와 韓國의 古典의 傳統을 直接間接으로 또는 寫實的으로나 抽象的으로 再現하려고 努力하는 部類와 sensual propagandism으로 外國의 여러가지 彫刻의인 踏動的인 作品을 模寫하려고드는 部類를 들었다. 이것은 모두 다 妥當한 길이라고 보겠으나 韓國社會의 後進性과 建築工業의 手工業의 方法和 經濟的 零細性등 여러가지 現實事情을 우리가 서있는 地盤이라고 하면 여기에 알맞은 韓國的 變貌가 이루어져야만 眞實한 建築行爲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建築家는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正確하게 把握한 끝에 自己自身이 建築哲學을 세우고 이것을 出發點으로 모든 活動을 展開할 것이 要求된다.

全般的으로 建築生産方式에 對해서

1. 모듈制定에 適正을 期할것

이것과 關係되는 問題들은 廣範圍하게 다음과 같다. 제일 重要한 것은 亦是 建築生産의 工業化이지만 다음으로 設計理論, 實際設計, 施工 뿐만 아니라 材料 部分品 등의 生産에도 關係되고, 또 建築空間에 包含되는 家具나 機械類의 標準치수와도 關連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듈의 起源은 그리스 時代부터 생긴 것으로 치수를 어떤 規準에서 끄집어 내는 것은 建築같이 複雜한 組合으로 되는 곳에서는 必須條件이다. 모듈은 古

典建築에서는 아름다운 建築을 만드는데 必要하였지만 近代建築에서는 建築을 機能的으로, 合理的으로, 經濟的으로 多量生産하기 爲하여 必要하게된다. 그래서 I S O (國際標準機構)에서는 모듈라코 오디네이션의 主目的을 「建築産業의 合理化와 建設費의 引下」에 두고 있음을 보면 우리나라 같이 모든 部面의 建築需要가 急増되고 經濟的으로는 힘이 弱하며 生産方式은 아직 手工業의 程度인 條件에서는 適當히 要求된다.

이미 世界各國은 모듈制定이 끝난 段階이기 때문에 미터法을 基礎치수를 하는 다른나라의 모듈을 그대로 適用하면 無難할 것 같이 느껴지며, 特히 모든 生産이 國際化하여 가는 實情에 비추어서도 이러한 모듈 制定 方法은 妥當할 것 같다. 단지 모든 外國의 實施案을 우리나라의 地域的 特殊性과 對比하여 여러모로 檢討하여 多少의 伸縮性을 갖게하는 것은 不可避할 것 같다.

2. 建築生産의 工業化

建築生産의 工業化는 다음의 세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즉 建築材料生産의 工業化, 建築工事의 機械化, 建築部品の 量産化이다. 위의 모든 部面이 韓國에서는 아직 遲遲不振한 形便이다.

建築生産의 工業化를 爲하여서는 優先 많은 種類의 建築에 共通된 要素를 整理하여 體系化하는 作業과 從來現場에서 一體화하던 일을 分解하여 組立하는 方式所謂 프레파라우리케이션의 作業이 必要하다.

建築生産을 部品化하여 多量生産하며 工事費의 引下를 目的으로하는 方法은 基本으로 다음의 세 方式이 있다.

Unit 式은 一室 또는 適當한 크기의 單位空間을 가진 箱子를 만들어 이것을 組合하는 方法.

Pancl 式, 바닥, 지붕, 벽을 파넬 部品으로하여 工場生産한 것을 現場에서 組立하는 方式.

Uuit skelton 式, 뼈대를 部分部分이 工場生産하여 現場에서 組立하는 方法.

이러한 部品化을 行하는데 必要한 問題는 먼저 치수 測定의 統一 즉 모듈制定이 先行되어야하며, 基本이 되는 部品을 決定하여야 한다. 벽, 바닥, 기둥, 계단등 構成方式에 따라서 種類가 다르나 現代建築으로서는 人間の 動作치수의 直接關連된 部品の 크기가 重視되어야 한다.

이와 密接하게 關係되는 다음 題目이 別途로 提示된다.

3. 建築生産의 機械化 乃至 現代化

建物은 漸次로 高層化되어가고 平面的으로 擴大되어

가는데 生産方式은 如前이 手工業方式인 現狀이다. 나무로된 비체에 믹사와 콘크리트타워가 唯一한 方法이다 建築業者들의 質의 向上은 그대로 生産되는 建築物의 質의 向上이 된다. 重量級 크레인이나 스타딩폼이나 뉴마틱 콘크리트마신이나 레미콘등 發達된 施工機械의 早速한 導入으로 建築의 質과 速度와 原價問題를 解決해야 된다. 흔히 建築業界의 發展狀況을 建立된 建築物의 面積量만으로 따지고 있으나, 이 보다 더 重要한 것은 質이 얼마나 向上되었느냐, 速度가 몇배 빨라졌느냐 얼마나 經濟的으로 低廉하게 되었느냐가 同時에 評價되어야 한다.

끝으로 建築技術問題에 限하여서는 거이 論議할 必要없이 上位水準이라고 보면 남은 問題는 建築政策上 問題로 住宅問題, 커뮤니티建設 나아가서는 都市再開發과 國土計劃樹立에 對한 問題들이다.

住宅問題는 이미 여러 角度로 檢討되어 綜合計劃이 樹立되고 있는 듯하다.

1961年 6月 주네브에서 採擇된 ILO總會에서의 「國家住宅政策의 目的」에 적혀있는 事項이 가장 適切하다 既存住宅 및 關聯社會 施設의 維持, 改善 그리고 近代化에 對한 特別한 考慮와 入住者 收入의 適當한 比列로되는 賃賃料 健全한 都市, 地域 및 地方計劃의 遂行과 步調를 같이하여야 할 것등이 그 重要한 事項이다. 우리나라 經濟開發 計劃에서 疑心스러운 點은 產

業을 어떠한 方向으로 伸張시키고 社會的인 生産力을 擴大시키느냐 하는 觀點이 重視되고 地域社會의 整備라는 都市計劃의 本來의 目的이든가 이것과 調和를 이룰수 있는 住宅需給關係와는 何等의 有機性을 띄이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또 地域社會 開發의 基本方向도 뒤떨어진 地域의 農業生産을 大消費地와 結付시켜서 大都市에 過剩集中한 工業을 後背地의 未開發 地域에 分散하는 過程을 통하여 後進地의 所得을 높이는 可能性을 찾아야할 터인데 이 亦是 이러한 技術的 問題보다 더 政治的 作用이 強한 느낌이 없지않다.

서울市도 首都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끔 再整備를 서두르고 있다. 그 成果도 놀랄만하다고 認定된다. 그러나 恒常 念慮 스러운것은 土地利用의 企業性만 追求하는 나머지 全體都市機能이 癱痺되지 않느냐하는 點이다 住宅團地나 工業團地의 造成은 都市活動의 一部를 既存 커뮤니티에서 分離하여 다른場所에 獨立한 閉鎖的 機能으로 純粹培養하는 것이기 때문에 比較的簡單하나 都市再開發은 좀더 複雜한 多次元의 構成으로 되어 있다. 모든 既存都市 施設의 언바란스, 交通機關의 平均치 못한 發展에 따르는 矛盾, 都市內 生活者의 職業分配의 不均衡에서오는 經濟的 破綻 그리고 또 都市景觀에 對한 無秩序는 露呈하는 矛盾이다. 앞으로 이 點 亦是 專門家들의 充分한 研究로 圓滑한 發展이 期待된다.

☆

☆

☆

(43페이지에서 계속)

施工上의 주의점은 蛭石을 充分히 흡수시켰다가 건조시멘트나 석회와 혼합하여 소유투계로 바르면된다. 기타는 一般몰탈의 시공방법과 同一하다.

※蛭石부력

蛭石부력이란 一般的으로 고층벨딩의 간벽용으로 사용되며 保溫 保冷工事의 二重壁 內部용으로도 使用된다. 蛭石부력의 特性으로 輕量性이고 斷熱 耐火性을 지닌 特殊부력이다.

(1) 特性과 종류

품 種	規 格	무 重 (Kg)	압축강도 kg/cm ²	열관유율 kcal/m ² h ^o C
질석부력	8 ϕ 397×194×194	9	25	1.00
〃	6 ϕ 397×194×143	7	25	1.50
〃	4 ϕ 397×194×92	5	20	1.70
질석부력	210×100×60	1.5	20	0.60

蛭石電着塗裝

蛭石骨材를 電子發生機에 依하여 各粒子를 飛昇시켜

天井이나 壁體에 電着시키는 工法이다. 전착도장은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다.

- ① 防音 結露防止 耐火 放射線 차단등의 效果.
- ② 어떠한 상태의 面에도 施工이 可能하다.
- ③ 施工期間을 매우 단축시킬수 있다.
- ④ 蛭石自體의 色體로서 不變의인 美를 가진다.

전착도장의 吸音率

周波數	125	250	500	1000	2000	4000
吸音率	0.31	0.32	0.52	0.81	0.88	0.84

以上과 같이 蛭石이 建築材로서 利用되는 分野를 大別하여 說明하였으나 앞으로 蛭石을 利用한 많은 새로운 材料가 研究生産 될 것으로 보고 또 生産者로서 보다 새로고 優秀한 材料를 生産 보급할것을 附言한다.

筆者 三安蛭石株式會社常務理事